

# 201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정답

1	⑤	2	③	3	①	4	⑤	5	②
6	①	7	②	8	③	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②	14	④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③	20	⑤

#### 윤리와 사상 해설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인성론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아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행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연 만물과 구별된다.
2. [출제의도] 민주 사회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민주 사회주의 사상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점진적인 방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누리는 세상을 지향한다.
3. [출제의도] 이항의 사상 이해하기  
 이항은 이기호발설의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하여 각각의 연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항과 이이는 모두 '현실에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4. [출제의도] 덕 윤리의 특징 이해하기  
 갑의 내용은 덕 윤리, 을의 내용은 의무 윤리의 주장이다. 덕 윤리는 도덕적 의무와 법칙을 강조하는 의무 윤리를 비판하고 인간의 성품과 덕성을 중시한다. 덕 윤리는 도덕적 모범이 되는 인격 모델을 제시하고, 인간의 자연적 감정과 동기를 중시하여 윤리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5. [출제의도] 스미스와 롤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애덤 스미스(A. Smith), 을은 존 롤스(J. Rawls)이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본다. 반면,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고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개인은 이기적 합리주의자임을 인정한다.
6.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보고, 자아나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아를 철저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와 '자연 만물'이 보이지 않는 불가분의 끈으로 맺어져 있다고 보고, 올바른 수양법으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실천을 강조한다.

- 다.
7. [출제의도] 플라톤, 흄, 듀이 사상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흄, 병은 듀이이다. 플라톤은 이원론적 관점에서 현실을 초월한 절대 불변의 진리를 주장한다. 흄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고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할 것을 주장한다. 듀이는 지식과 도덕은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반성적 사고를 중시하며, 유용성이 가치 판단의 기준임을 강조한다.
  8. [출제의도] 주자와 왕양명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한 주자이고, 을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한 왕양명이다. 주자는 개개 사물에 존재하는 이치에 대한 탐구와 지식의 확충을 강조한다. 반면 왕양명은 이론적 지식을 탐구하지 않아도 타고난 양지(良知)를 실현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자와 왕양명은 모두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慾)을 제거할 것을 강조한다.
  9. [출제의도] 라이프니츠와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라이프니츠, 을은 데카르트이다. 라이프니츠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한다. 그는 만물이 정신적 실체인 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단자에는 각자의 목적이 부여되어 있어 질서 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신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출제의도] 한국의 근대사상 비교하기  
 (가)는 동학, (나)는 증산교, (다)는 원불교이다. 동학은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민족 주체성과 인본주의를 강조한다. 증산교는 원한을 풀고 은혜를 갚을 것을 강조한다. 원불교는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고 생활불교를 표방하여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들은 모두 만민평등사상과 후천개벽사상을 강조한다.
  11. [출제의도] 실존주의 이해하기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하이데거이다.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 의미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죽음을 회피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죽음을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것을 강조한다. 아퀴나스는 덕을 자연적 덕과 종교적 덕으로 구분하였으며 종교적 덕에 의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한다고 본다.
  13.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파와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밀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순간적·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면 오히려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 검소와 절제를 통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쾌락의 질적인 차이

- 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도덕적인 삶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14.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장자는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차별하지 않는 제물(齊物)을 주장한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 및 인식의 한계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관에 얽매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며,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를 지향한다.
  15. [출제의도] 지눌과 혜능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지눌, 을은 혜능이다. 지눌에 의하면, 범부는 돈오 후에도 인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혜능은 인간이 곧 부처임을 단박에 깨우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본다.
  16. [출제의도] 신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스피노자, 병은 오컴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오컴은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고,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피노자는 우주를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생각하고 신적 필연성에 대한 인식으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7. [출제의도] 헤겔과 마르크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헤겔, 을은 마르크스이다. 헤겔은 윤리의 사회적·역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국가를 최고의 인륜(人倫)이라고 보고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의미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사적 소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공산사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국가가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가 개인들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8. [출제의도] 노자와 공자의 이상사회 비교하기  
 갑은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주장한 노자, 을은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지향한 공자이다. 노자는 인위를 거부하고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을 지향한다. 공자는 큰 도(道)가 행해지고 현명하고 유능한 자가 등용되며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19.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 을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이다. 맹자는 양지와 양능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순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에, 예(禮)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教化)할 것을 강조한다.
  20.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비교하기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좋은 삶이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자유주의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가치를 전제하지 않고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